

Market Index / 4일

코스피지수 ▼	2066.97 -0.88	코스닥지수 ▲	702.53 +5.03	유가(WTI, 달러) ▼	53.25 -0.25	환율(원)	1USD 100¥	살매	1204.21 1114.33	팔매	1162.79 1076.01	1EUR 1CNY	살매	1359.61 179.34	팔매	1306.57 162.26
---------	------------------	---------	-----------------	---------------	----------------	-------	--------------	----	--------------------	----	--------------------	--------------	----	-------------------	----	-------------------

400억짜리 제2농공단지 확장 전면 중단

제주도 “3년째 주민 설득 안돼 ‘장기 유보’ 결정” 주민들 “생활·경제권 인접”... 3곳 모두 사업 반대

400억원 규모의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여 만에 전면 중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구좌읍,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각각 추진하려던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장기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한 지 4년 여만의 일이다.

제주도는 구좌읍, 금능리, 대정읍에 있는 3곳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됐고, 100% 분양으로 더 이상 기업에게 부지를 공급할 여력도 없어지자 이들 농공단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2농공단지 확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3곳 농공단지별 확장 규모는 금능이 11만7000여㎡로 가장 크고, 대정과 구좌는 각각 8만9000여㎡와 5만3000여㎡로 계획됐다. 이렇게 되면 3곳 농공단지는 지금보다 규모가 2배 가량 확장된다. 전체 사업비는 398억원으로 추산됐다.

제주도는 우선 규모가 가장 큰 금능농공단지를 식음료 특화 단지 형태로 확장하고 이후 나머지 2곳에 대한 특화 방향을 찾기로 했다.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주민 설득에 난항을 겪으며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왔지만 금능의 경우 확장 단지가 주민 생활권과 1km 이내에 위치해 있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농공단지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한 마을 혼잡이 예상되고,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좌읍 주민들은 지역에 있는 관광지와 생활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정읍 주민들은 가목이나 지역에 돈사가 많아 축산 악취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농공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제주도는 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 사이에

‘농공단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된 것 같다”며 “기존과 같은 방식의 농공단지 형태로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농공단지를 확장 조성하면 그 지역의 농수산물 80% 이상 쓰는 기업을 단지에 유치하는 등의 대책도 제시했지만 모두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설득이 안된 상태에서 더 이상 제2농공단지 확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협의는 이어갈 계획이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대체 부지를 찾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타당성 조사에서 확장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모두 6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항공 JJ라운지로 놀러오세요”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지역에 있는 제주항공 ‘JJ라운지’에서 이용객과 라운지 직원들이 개점을 축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지자체 불법 숙박영업 집중 단속

17일부터 2주간 합동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업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부처, 기관 등은 이번 단속에서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 등록 여부, 부처, 시설·확장 영업 여부, 소방 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있으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단속 전 자진 등록·신고 기간(4~14일)을 운영한다.

영업자는 이 기간 관할 관청에서 영업신고·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적발된 신고·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폐업을 하면 행정조치는 하지 않는다.

이상민기자

제주삼다수 ‘환경성적표지’ 인증 추진

패키지 라벨 분리표시도

제주삼다수가 환경과 관련한 소비자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반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비롯해 제품 라벨 분리표시 적용을 시행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가 지난해 탄소발자국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하반기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제품 관련한 환경성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500ml 등 제주삼다수 제품 총 4종이며, 연 내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제도는 탄소발자국과 물 발자국 등 환경부가 지정한 7가지 환경성 지표를 종합한 통합 인증이다. 제품 원료 채취부

터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수치를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제주삼다수는 또 패키지 라벨에 분리표시를 표기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500ml 제품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전 제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직접 라벨을 떼 뒤 패키지를 배출하는 ‘착한 배출’이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개발공사는 제품 마개를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로, 제품 패키지를 단일재질의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했으며 접착제를 재활용이 용이한 열알칼리성(수분리성) 접착제로 교체했다.

표성준기자

주택경기 다시 하강국면 HBSI 전망 2개월 연속 ↓

넒뛰기 양상을 보이던 제주지역 주택사업경기가 다시 하강국면으로 급속히 빨라들어가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72.9로 5월 대비 1.2p 하락하면서 올 상반기 70선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2년째 기준선(100)을 크게 밑돌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별로 면밀한 주택수급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전략·사업 계획을 수립해 적정 공급가격과 공급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지적했다.

제주지역인 경우 54.5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2.6p 하락했다. 2개월 연속 하락인 셈이다. 제주지역 HBSI 전망치는 올들어 1월 42.8을 기록하며 바닥을 친 뒤 2월 82.6으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곧바로 3월 64.0으로 하락했으며, 4월엔 다시 71.4로 상승해 넒뛰기 양상을 보였다.

5월 HBSI 실적치는 45.4로 지난해 11월 39.1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성윤기자

야금야금 오르는 생활물가... 5개월째 상승세

5월 소비자물가는 0.5% ↑ 수박·무·시금치 등 ‘경증’

제주지역 생활물가지수가 소폭이지만 5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제주지역 2019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6.19로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 104.38을 기록한 이후 올 1월 104.48, 2월 104.94, 3월 104.95, 4월 105.31을 기록했다.

4월에 비해 상승한 품목은 수박(23.5), 무(22.2), 시금치(19.1), 오렌지(16.7), 상추(14.5), 돼지고기(8.2), 휘발유(7.5%) 등이다. 오이(-25.5), 호박(-16.4), 토마토(-14.7), 부추(-14.5), 감자(-14.3%) 등은 하락한 품목이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2% 상승,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했다.



4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05(2015년=100)로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지난 1월 0.8%, 2월 0.5%, 3월 0.4%, 4월 0.6%에 이어 5개월째 0%대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마트의 모습. 연합뉴스

품목성질별인 경우 상품은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0.5%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9% 상승, 전년동월대비 변동없었다. 전기·수도·가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2% 각각 상승했다.

서비스는 전월대비 변동없으며,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했다. 집세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2% 각각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하귀2리 자연녹지(전) 일주도로점 223㎡ 바다, 한라산조망 2억2천	서흥동 호텔 25실 해안도로점 전 객실 바다뷰 34억5천	유수암리 계획관리(전) 2차선점할 400㎡ 오수관공사중, 다용도부지 1억7900만	연동1.5름 마리나호텔사거리 인근 10층 중 7층 로열층 남향, 위치 좋음 1억5200만	토산리(급매) 계획관리(과수원) 4m도로점할, 4056㎡ 건축가능토지 5억1천	와흘리 계획관리(전) 전원주택부지 951㎡ 현과수원사용, 건축허가득 3억4500만	고산리 계획관리(전) 자연취락지구 731㎡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4억4600만
---	--	--	--	--	--	--

등록번호: 제 50110-2017-002100호
대표공인중개사: 노진업
위치: 연북로 606, 3층

제주항공 공인중개사 064-723-8850 010-4692-0952

공인중개사 제주권설팅 ☎ 726-4585 010-8660-1263	동부공인중개사 ☎ 010-2800-4595 064-747-5115
<p>와흘리 계획관리지역 창고 대지 2,100㎡ 창고 2동 6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좌읍 김녕리 4,300㎡(자연녹지, 맹지) 거로마을 주거지역 1600㎡ 남원 하례리 2300㎡ 자연녹지(과) 대정읍 무릉리 전 12,000㎡(계획관리지역) 법환동 2400㎡, 5000㎡ 해안도로 인근 (건축허가 득) 서귀포 강정동 2100㎡ 자연녹지(과) 	<p>표선면 가시리 계획관리 35,000㎡ (2차선점, 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 법환동 오피스텔 38.19㎡ 분양가 이하 매매 오동동 전·임야 18,000㎡(생산관리지역) 매월 유수암리 2,500㎡(계획관리, 임, 2차선점) 조천읍 북촌리 전 3,000㎡(자연녹지, 맹지) 조천 신촌리 자연녹지 1,600㎡(대도로점) 한경면 저지리 전(11,000㎡) 계획관리지역 한림읍 용포리(주거지역) 2,000㎡ 바다점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시 민 장 의 사

<서귀포 천주교묘지 책임 총관리>
사무실: ☎ 064) 732-5200, 762-5316 H·P 010-3696-3172, 010-8661-6560

택일, 토신제 / 축문, 제관, 제물, 장례일체 (매장·화장·이묘) 중형, 소형, 차량반비 / 향상주, 야대기 방문상당환영

약도: 정방목도, 에이스주유소, 비석거리, 동문묘지, 남원, 시민장지사, 일호관장, 도로명